



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·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

<보도 주요 내용>

이데일리는 8월 1일(목) 「개 사육농가 보상 ‘마리당 30만원’...3년치 보상땀 4500억」 제하 기사에서 “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‘육견업계 실태조사’에 따라 전폐업 보상 산정 단가를 개 1마리당 연간 30만원으로 책정”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업계의 전·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,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정부는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,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	책임자	과 장	손경문 (044-201-2280)
		담당자	사무관	정재균 (044-201-2282)